

KMI 동향분석

VOL.69

2018 JANUARY

발간년월 2018년 1월(통권 제69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윤인주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mouthpiece@kmi.re.kr/051-797-4724)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이정아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최근 바다낚시를 배경으로 한 ‘삼시세끼 어촌편’, ‘도시어부’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에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여행 시 즐기는 취미생활을 묻는 질문에서 낚시라고 응답한 비중이 40%로 그 동안 국민여가로 인식되던 등산을 제치고 낚시가 1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바다낚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2010년과 2015년 사이 5.7% 포인트 증가해, 다른 해양관광레저 활동에 비해 바다낚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낚시인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 현재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낚시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 이용객은 2013년 약 196만 명에서 2016년 약 34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2016년 기준 낚시어선 수는 4,500척, 낚시어선의 전체매출은 약 2,240억 원 규모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낚시어선 1척당 연평균 매출액이 5,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2013년 2,800만 원이었던 데 비해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낚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대비 2016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1.5배 증가한 반면, 안전사고는 16배, 인명피해는 5배로 증가했다. 안전사고 중 선박사고는 기관 고장, 추진기 장애 등 ‘기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돌’과 ‘좌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사고 외에도 실족·추락, 밀물로 인한 고립, 파도에 휩쓸리는 안전사고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이에 따른 해양환경오염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 금어기와 낚시

제한구역에서의 낚시활동 등 미성숙한 낚시문화와 낚시 활동자의 안전 불감증은 낚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나 레저낚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해온 국내 낚시문화의 특성상 낚시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이나 낚시자원에 대한 금어기, 체장 제한 등과 관련된 기초정보나 교육, 수산자원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당원에서 2015년에 실시한 낚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바다낚시 활동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7%로 3명 중 1명에 불과해 낚시문화 성숙도가 낚시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수산자원 관리 측면에서 낚시활동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3.8%로 나타나,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 낚시활동을 제한해 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낚시인구의 조획량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11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낚시인구 급증은 낚시활동으로 인한 조획량 증가를 동반하므로 어족자원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대중화를 위해서는 낚시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환경교육, 낚시 관련 제도·규제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낚시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낚시 관련 협회 및 동호회가 주축이 되어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즐기기 위한 ‘국민 낚시(樂時) 문화 프로젝트(가칭)’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낚시 활동자 스스로가 올바른 낚시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낚시인구, 낚시활동으로 인한 조획량 등 관련 통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 낚시면허제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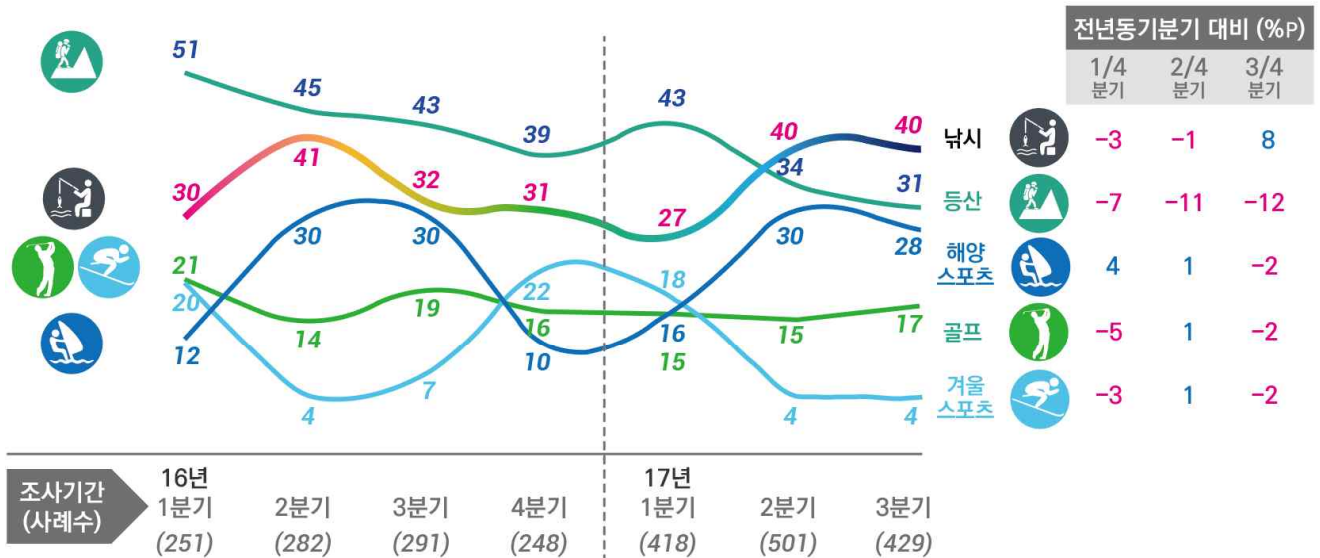
우리나라 바다낚시 인기의 폭발적 증가

■ 최근 여행 중 이루어지는 레저활동 유형으로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

- 최근 들어 어촌을 배경으로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삼시세끼 어촌편’, ‘도시어부’ 등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여행 시 취미·운동 활동 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 2/4분기 취미생활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숙박여행의 목적에서 낚시라고 응답한 비중이 40%로 나타나 낚시가 등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함
- 2016년 1/4분기에는 등산이 51%, 낚시가 30%로 나타났으나 이후 등산 활동의 감소 추이가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2017년 2/4분기를 기점으로 낚시가 등산을 앞지르며 1위에 올랐고,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그림 1. 여행 시 취미·운동 활동 계획

(3개월내 국내여행 계획자, 복수응답,%)



Q. 앞으로 가실 000여행에서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Q.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

*출처: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조사

자료: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 2017. 10, p. 1

그림 2. 바다낚시가 소재가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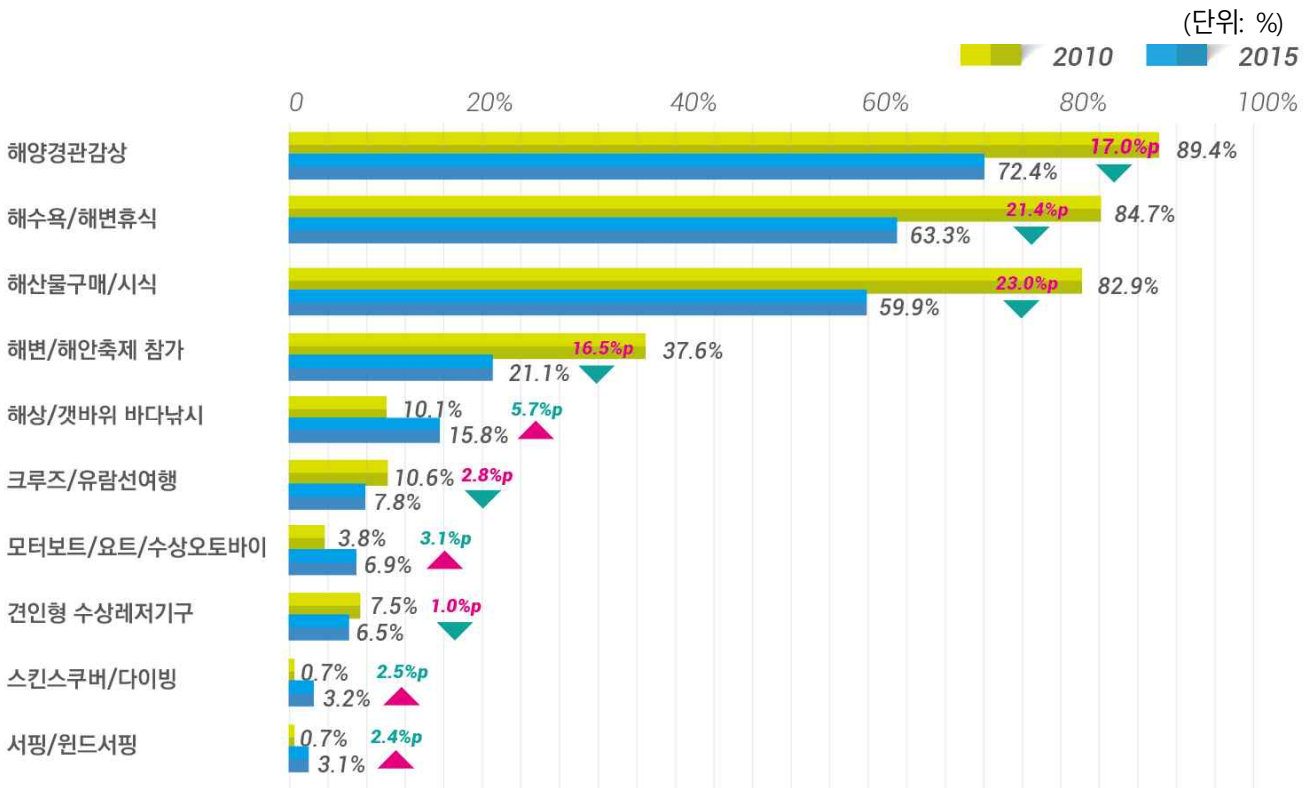
자료: (좌) 채널A 도시어부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program/template/program_articleList.do?cateCode=0500&subCateCode=050026&paGeGubun=broadcasting&pgm_id=WPG2170115D, 2018. 1. 22. 검색

(우) tvN 삼시세끼 어촌편 홈페이지, <http://program.tving.com/tvn/3bobfisherman>, 2018. 1. 22. 검색

-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해양관광-레저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바다낚시(해상/갯바위 낚시) 참여율이 2010년과 2015년 사이 5.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해양관광-레저 활동에 비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3.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해양관광-레저 활동(2010,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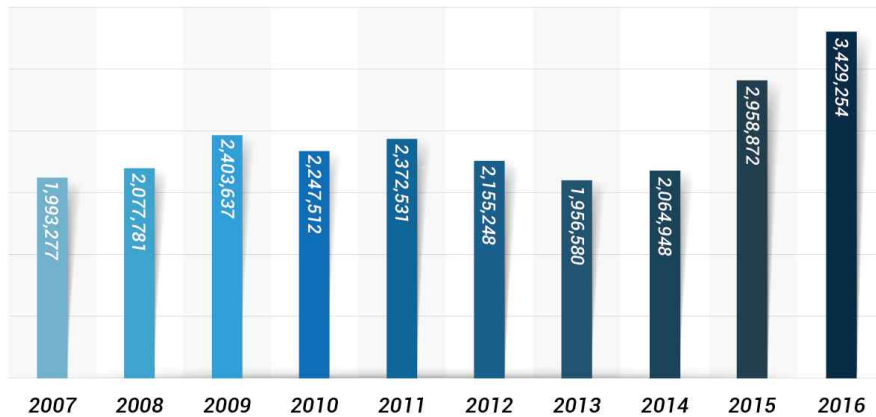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2011; 홍장원 외, 『해양레저·관광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표개발』, 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국내 낚시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700만 명 이상을 기록

- 국내 낚시인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지난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3년 196만 명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해 2016년에는 약 343만 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바다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경상남도 지역의 낚시어선 이용객 수가 약 84만 명으로 전체 이용객 수의 24.6%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지역이 64만 명(18.6%), 전라남도 지역이 54만 명(15.7%)으로 나타남

그림 4. 국내 연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2007-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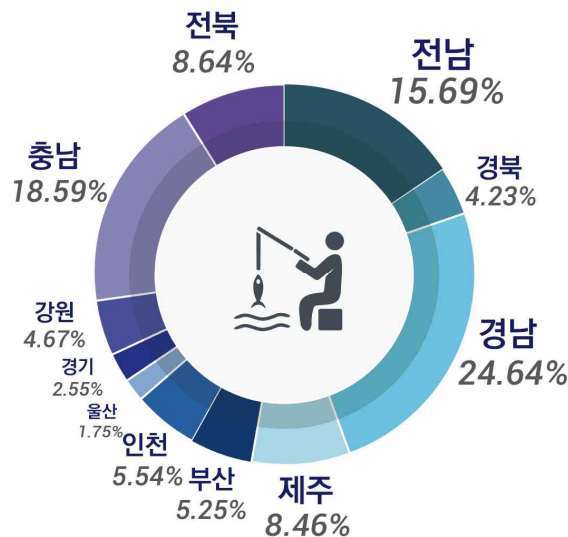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해양수산부

그림 5. 지역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 (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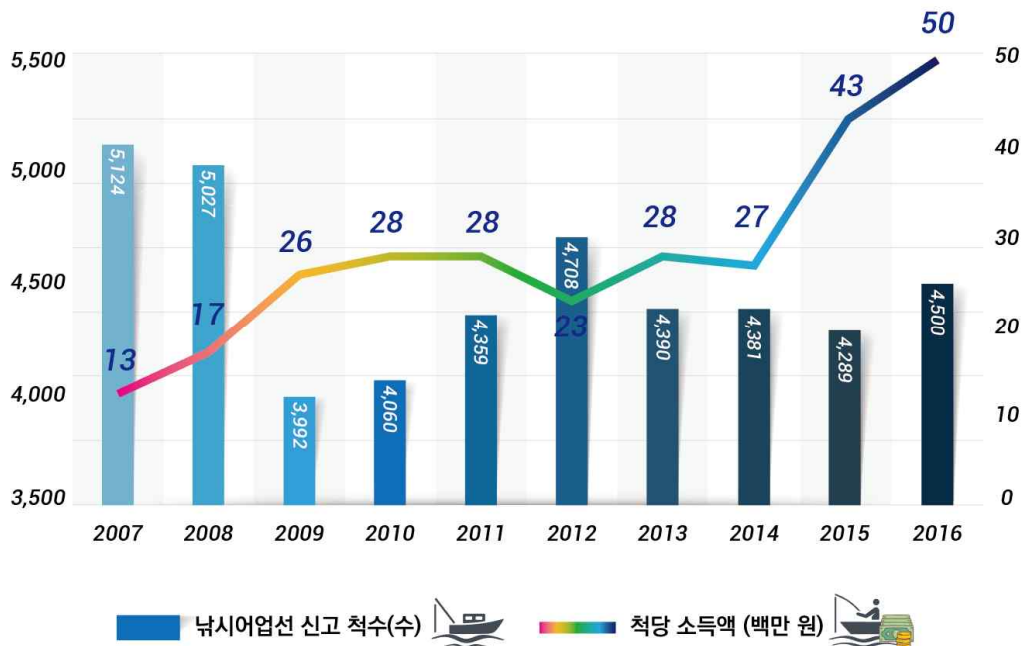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업¹⁾ 신고 척수는 2016년 기준 4,500척이며, 지난 10년 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5,124척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3천 척 대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증감을 반복하며 4천 척 대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지역이 1,154척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1,036척(23%), 전라남도 830척(18.4%)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낚시어선업 전체 매출은 약 2,240억 원 규모²⁾이며, 1척당 연평균 매출액은 5,000만 원 수준으로 2013년 2,800만 원이었던 데 비해 낚시어선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6. 국내 연도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와 척당 소득액(2007-2016년)

(단위: 척,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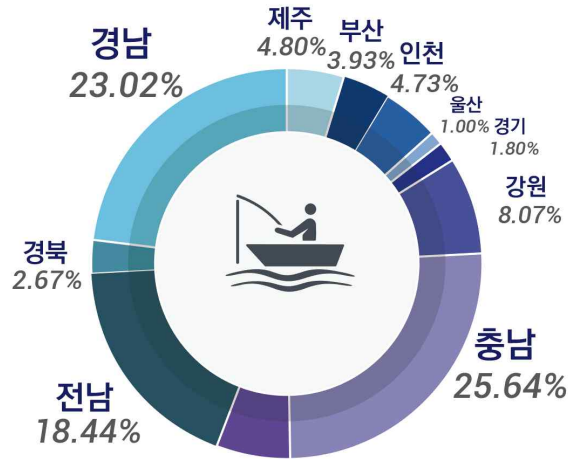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2) 낚시어선업 매출 추정: 낚시어선 이용객 X 지역별 평균이용요금

그림 7. 지역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 (2016년)

(단위: %)



자료: 해양수산부

국내 바다낚시 안전사고 지속적 증가

■ 낚시어선 이용객 대비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급격히 증가

- 2006년 대비 2016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1.5배(230만 명→343만 명) 증가한 반면, 안전사고는 16배(13척→208척), 인명피해는 약 5배(14명→68명) 증가해 낚시활동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 사고유형은 기관 고장, 추진기 장애 등 ‘기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돌’과 ‘좌초’순이며 최근 3년간(‘15~’17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명피해는 대부분 ‘부상’이며 그 숫자도 최근 3년간 유례없이 늘어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5년부터 바다낚시 인구 및 낚시어선 이용객 수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증가 속도가 급격하며, 2017년에는 관련 사고가 더욱 늘어남

표 1. 낚시어선 사고현황

(단위 : 척, 명)

구분	사고유형								인명피해			
	소계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기타*	소계	사망	실종	부상
'17년 (잠정)	263	30	3	17	-	1	6	206	105	15	-	90
'16년	208	19	1	17	-	2	13	157	68	-	-	68
'15년	206	15	3	14	1	8	8	160	62	17	3	42
'14년	86	9	1	10	-	3	1	62	9	-	2	7
'13년	77	14	-	7	-	1		50	19	1	-	18
'12년	71	6	-	4	-	-	1	60	16	1	-	15
'11년	45	7	-	1	-	-	1	36	34	2	-	32
'10년	7	2	-	4	-	-	-	1	7	1	-	6
'09년	10	5		3				2	2	2	-	-
'08년	8	4		3			1		-	-	-	-
'07년	6	2		4					3	-	-	-
'06년	13	4		6			3		14	14	-	-

* 기관 고장, 추진기 장애 등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선박사고 외 실족·고립·표류 등 안전사고 등도 지속적 증가

- 선박사고 외에도 개인부주의로 인한 실족·추락, 만조로 인한 고립, 파도에 휩쓸리는 안전사고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 최근 5년간 선박사고 외 바다낚시 안전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경우는 매년 20건을 넘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26건에 달함
- 사고유형은 주로 '실족'이며 '파도'에 휩쓸리거나, 밀물로 인한 '고립', 고무보트 '표류' 등임
- 이러한 안전사고의 특징은 선박사고에 비해 건수는 적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 인명피해를 보면 선박사고와 비교할 때 사고인원 대비 사망인원이 높은 편임
- 특히 갯바위는 바닥이 고르지 않고 고립된 장소가 많아 개인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련 안전지침 준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임

표 2. 최근 5년간 선박사고 외 바다낚시 안전사고 언론보도

(단위 : 건, 명)

구분	사고유형						인명피해		
	소계	실족	파도	고립*	표류**	미상	소계	사망	부상
'17년	26	13	4	3	2	4	27	11	16
'16년	10	9	1	-	-	-	10	5	5
'15년	14	8	4	1	-	1	13	7	6
'14년	17	11	5	-	-	1	19	12	7
'13년	10	3	1	2	-	4	10	6	4

* 밀물로 인한 고립, 1건은 고무보트 분실 후 고립

** 고무보트

자료: 포털 검색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8. 바다낚시 사고 사례



(방과제) 추락



(밀물) 고립



(고무보트) 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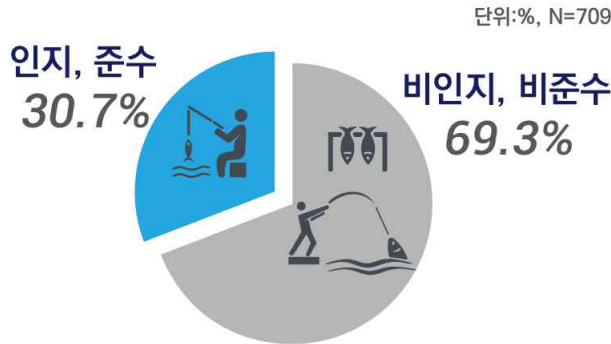
자료: (좌) 겨울 바다낚시 위험...낚시객 주의 필요, <http://news1.kr/articles/?3198883>; (중)(우) 700만 낚시 열풍... 바다 곳곳에 도사린 안전사고 위험, <http://newsjoins.com/article/22170551> 2018. 1. 23. 검색

바다낚시 인구는 증가했지만 낚시문화 수준은 낮아

■ 바다낚시 활동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와 준수율은 낮은 실정

- 낚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어기, 수산자원 보호, 낚시활동 제한구역 등 낚시활동 제한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준수한다는 비율은 30.7%로 3명 중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70%의 응답자는 낚시활동 제한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낚시문화 성숙도가 낚시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연령이 낮을수록 낚시활동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올바른 낚시문화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낚시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낚시 관련 규정 및 에티켓 교육이 필요함

그림 9. 낚시활동 제한 규정 인지도 및 준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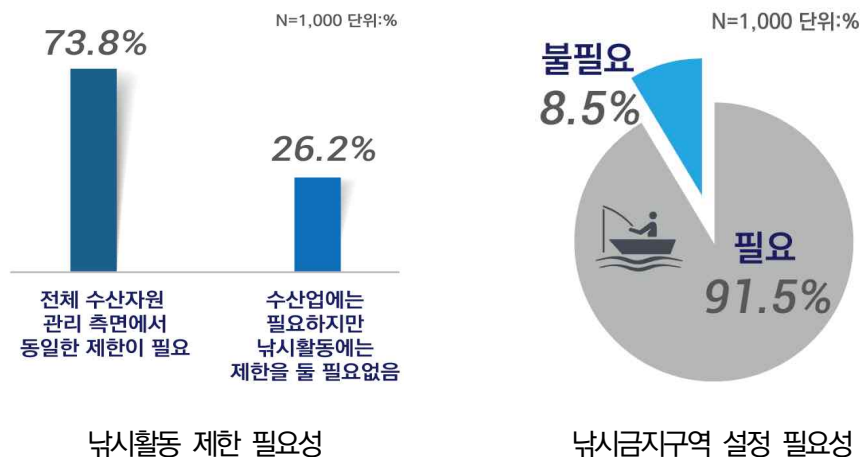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낚시 활동 여건 분석 및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조사』, 2015.

■ 자원·환경·안전 관리 측면에서 낚시활동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수산자원 관리 측면에서 낚시활동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3.8%로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26.2%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함
- 낚시인구의 조획량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11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수산경제연구원, 2016)
- 낚시인구 급증은 낚시활동으로 인한 조획량 증가를 동반하므로 어족자원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낚시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파제 실족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낚시활동으로 인한 사회문제 때문에 설정한 낚시금지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비율이 91.5%로 높음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낚시활동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한계를 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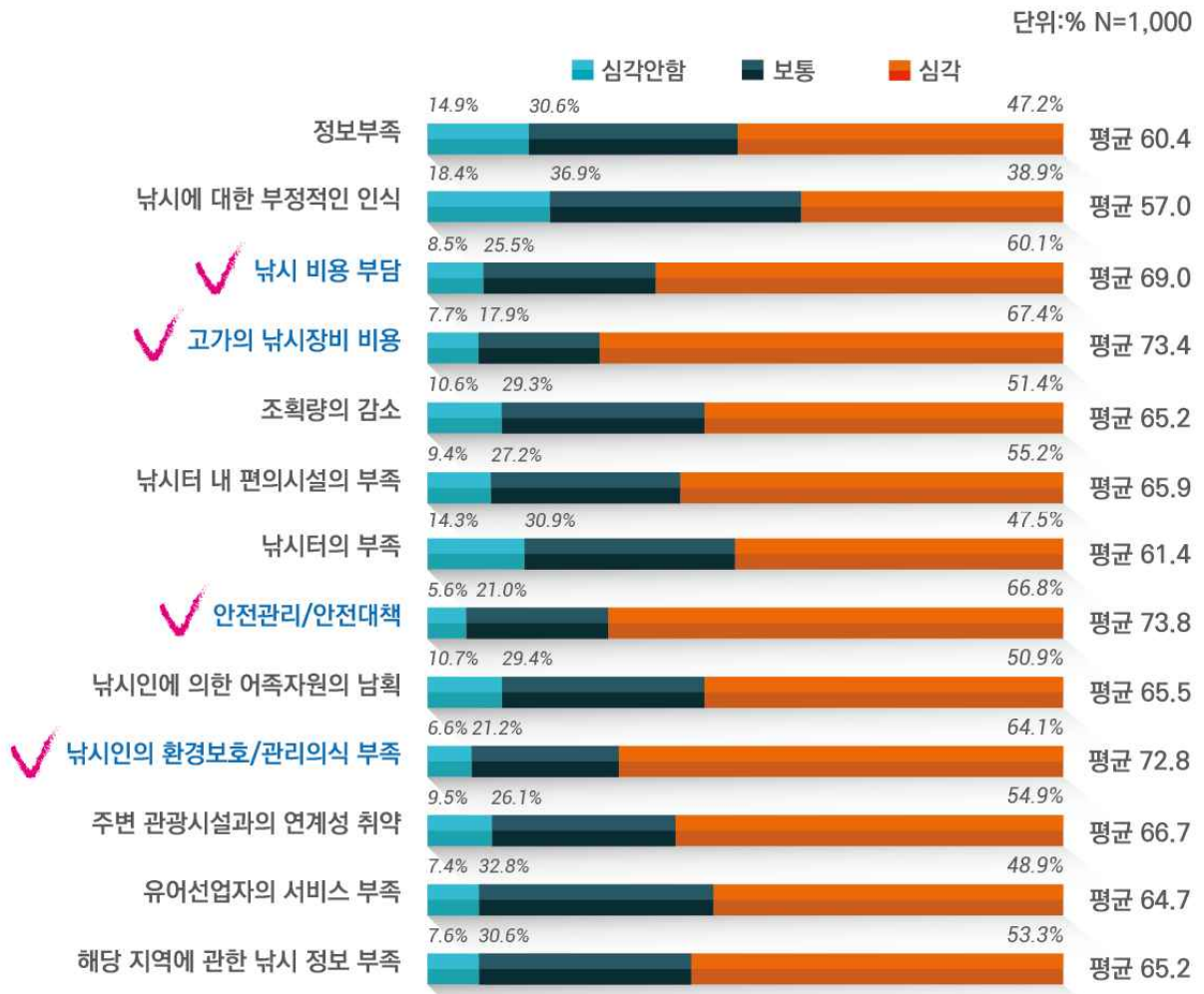
그림 10. 낚시활동 제한 규정의 필요성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낚시 활동 여건 분석 및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조사』, 2015.

- 낚시 활동자들은 현재 낚시활동 여건 중 안전관리 및 안전대책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가의 낚시 장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낚시 활동자의 환경보호 및 관리의식 부족, 낚시활동 시 비용 부담 등이 낚시활동의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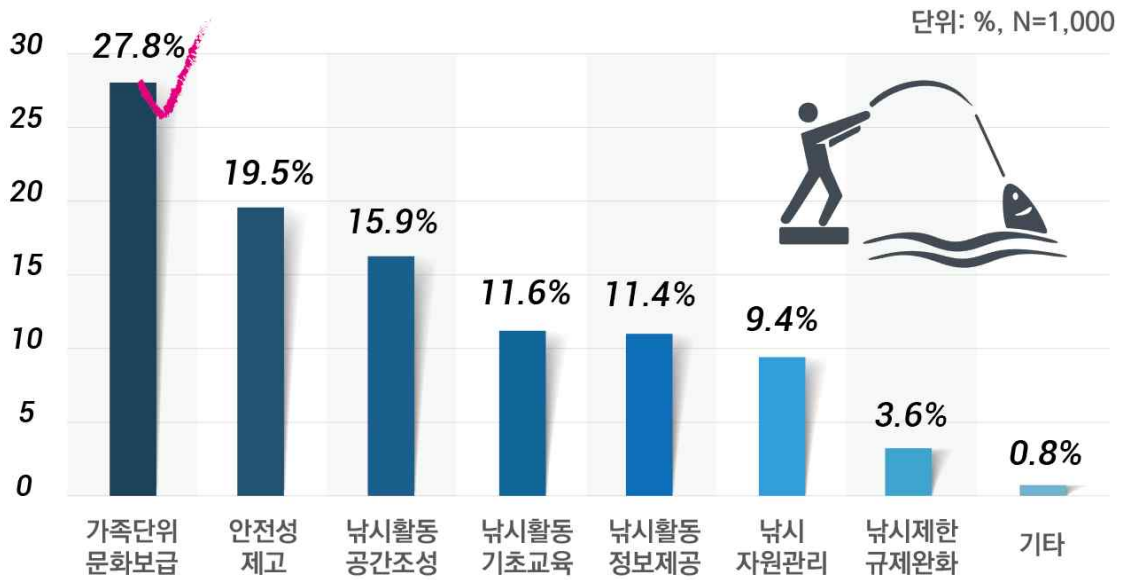
그림 11. 낚시활동 여건상 문제점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낚시 활동 여건 분석 및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조사』, 2015.

- 낚시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단위 낚시 문화 보급이 시급하며, 안전성 제고, 낚시활동 공간 조성, 낚시 기초교육, 낚시 관련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낚시 경험이 없거나 낚시활동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경우 안전성 제고와 낚시 관련 기초교육, 낚시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아 낚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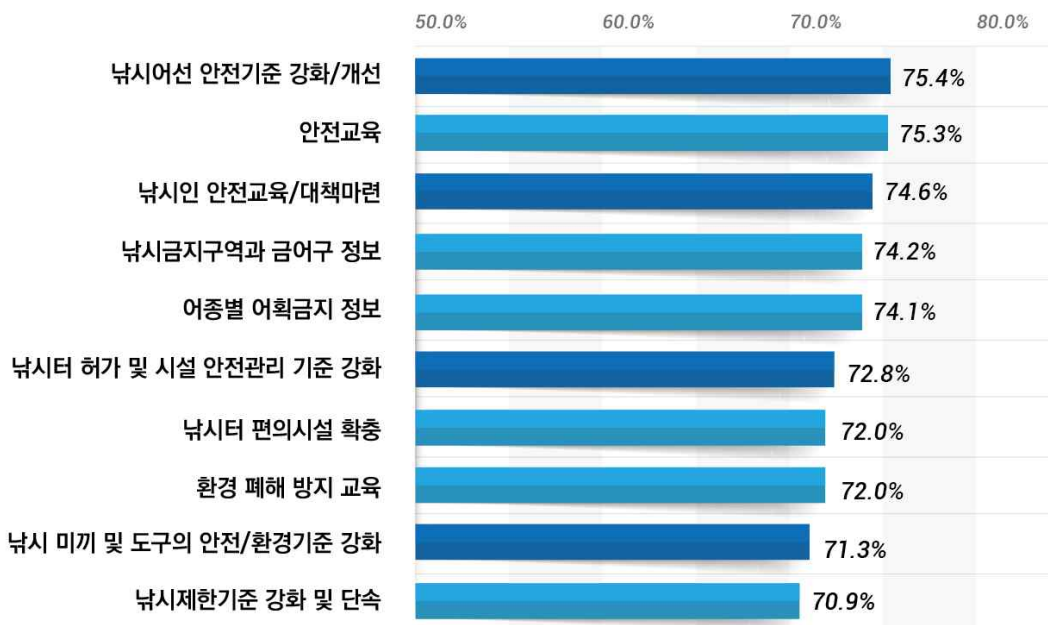
그림 12. 낚시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낚시 활동 여건 분석 및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조사』, 2015.

- 낚시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10대 주요 정책 중 낚시어선 안전기준 강화 및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기초 안전교육, 낚시 활동자 안전교육 및 대책 마련, 낚시금지구역과 금어구 정보· 어종별 어획금지 정보 제공 등의 순으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낚시 관련 정책별 중요도 순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낚시 활동 여건 분석 및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조사』, 2015.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 낚시인구 성장에 발맞춰 교육을 통한 성숙한 낚시문화 정착 추진

- 낚시 활동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낚시 기초교육의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낚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바다낚시는 대표적인 해양레저활동이나 안전 불감증, 무질서, 환경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 비호감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함

그림 14. 낚시 관련 언론 이슈



최근 10년간 기사 중 '낚시' 연관어 검색 결과



안전 불감증(낚시대 불법 증축)



환경오염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자료: (좌상) 한국언론진흥재단, www.bigkinds.or.kr 2018. 1. 23. 검색

(우상) 불법증축·출항금지 무시...낚시대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http://www.nocutnews.co.kr/news/4621813> 2018. 1. 23. 검색

(우하) 주말 낚시배 출항...마구잡이 남획, http://916.newsk.com/bbs/bbs.asp?group_name=916§ion=2&idx_num=27004&exe=view 2018. 1. 22. 검색

(좌하) 월척 후 쓰레기 투척... 낚시터에 '버려진 양심' 年 5만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4/2017110400139.html 2018. 1. 22. 검색

- 안전한 낚시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며 낚시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환경교육, 낚시 관련 제도·규제 교육 등이 필요함
- 기존 낚시 활동자 뿐만 아니라 신규 낚시 활동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낚시 예절, 해양생물 및 환경 교육, 금어기와 채장 제한 등 국내 낚시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후대가 용이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배포해야 함
- 전국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낚시 관련 수산자원 교육, 해양생태·환경 교육, 해양안전 교육 등을 연계할 수 있음
- 외국에서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낚시 매너 및 안전 교육, 해양생물·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년 시절의 낚시와 관련된 경험은 물에 대한 친밀감 제고, 낚시를 비롯한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흥미 등으로 이어져 낚시 대중화의 원동력이 됨

그림 15. 어린이 낚시 교육 프로그램 사례



어린이 낚시 기초교육



어린이 해양생물 및 환경 교육

자료: (좌) http://www.younggunsfishing.com.au/fishing_for_kids_and_teens.html 2018. 1. 23. 검색

(우) <http://www.engadinemotorinn.com.au/whats-on.php> 2018. 1. 23. 검색

■ 건전한 낚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과 낚시 활동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 필요

-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관련 협회, 낚시 동호회 등 민간 유관 기관 등이 협력하여 낚시대회, 낚시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를 낚시 체험교실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일회성 행사/이벤트에서 벗어나 내용적 측면에서 내실화를 꾀해야 함
- 낚시 관련 축제 및 이벤트를 해양생물의 가치와 중요성,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활동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기회로 활용해야 함
- 낚시 동호회 및 관련 협회가 주축이 되어 낚시 활동자 스스로 낚시터 주변 환경정화 캠페인, 낚시 관련 규정 홍보, 낚시 규정 준수 서약식 등 올바른 낚시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함

■ 국민 낚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

- 낚시활동을 국민 레저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 낚시(樂時) 문화 캠페인(가칭)’ 등의 슬로건과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 계층별 낚시 홍보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낚시 안전, 수산자원 관리(금어기, 체장, 금지구역) 등을 포함한 낚시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수산자원 관리체계 안에서 낚시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활동에 대한 통계구축과 더불어 낚시터 시설 및 환경개선, 가족단위 낚시공원 정비사업, 낚시대회 등을 확대하여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더 나아가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낚시면허제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임
- 낚시가 국민 레저스포츠로 발전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낚시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인력 확보와 더불어 이를 전담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부록. 최근 5년 선박사고 외 바다낚시 안전사고 언론보도

연번	연도	기사제목	지역	사망	부상	사고장소	사고원인
1	2013	태안해경, 바다로 추락한 60대 낚시객 구조	충남	-	1	갯바위	실족
2		제주 주상절리 앞바다서 40대 낚시객 숨져	제주	1	-	갯바위	실족
3		태안해경, 소분점도 갯바위 낚시객 2명 구조	충남	-	-	갯바위	(밀물) 고립
4		낚시객 외돌개 인근서 바다로 추락해 사망	제주	1	-	갯바위	실족
5		고흥서 낚시하던 경찰관 바다에 빠져 숨져	전남	1	-	가두리 양식장	원인 미상
6		포항 구룡포서 낚시객, 높은 파도 휩쓸렸다 구조	경북	-	1	방파제	파도
7		태안해경, 안면도 갯바위 고립객 2명 구조	충남	-	2	갯바위	(밀물) 고립
8		부산서 낚시 준비하던 노인 바다에 빠져 숨져	부산	1	-	선착장	원인 미상
9		낚시하던 60대 바다에 빠져 숨져	제주	1	-	해상	원인 미상
10		낚시하러 나간 40대男, 사흘만에 숨진채 발견	제주	1	-	해상	원인 미상
11	2014	가덕도서 낚시하던 60대 파도에 휩쓸려 숨져	부산	1	-	갯바위	파도
12		영덕 바다서 낚시하던 50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경북	1	-	해상	(너울성) 파도
13		삼척 방파제에서 50대 바다에 빠져 숨져	강원	1	-	방파제	실족
14		부산 백운포 앞바다에 낚시객 추락해 부상	부산	-	1	해상	실족
15		울진서 바다낚시객 실족사	경북	1	-	갯바위	실족
16		거제 테트라포드 일부 무너져...낚시객 3명 중 경상	경남	-	2	방파제	파도
17		거제서 갯바위 낚시 60대 추락사	경남	1	-	갯바위	실족
18		제주 바다낚시하던 40대, 바위 아래로 추락 부상	제주	-	1	갯바위	실족
19		영덕 방파제 낚시하다 실족사 잇따라	경북	2	-	방파제	실족
20		거제서 40대 남성 갯바위 추락해 숨져	경남	1	-	갯바위	실족
21	2015	포항 갯바위 낚시객, 너울성 파도 휩쓸려 숨져	경북	1	-	갯바위	(너울성) 파도
22		거제 앞바다서 동료 구하려던 70대 낚시꾼 익사	경남	1	-	갯바위	실족
23		갯바위 낚시 중 2명 바다에 빠져...1명 중태	전남	-	1	갯바위	파도
24		태안 천리포서 40대 물에 빠져 숨져	충남	1	-	갯바위	실족
25		술 취한 40대 낚시꾼, 바다에 '퐁당'	경북	-	1	방파제	실족
26		60대 낚시꾼, 대왕암 구름다리 인근서 바다 추락 실종	울산	1(실종)	-	갯바위	실족

27		울진소방서 후포항 추락 낚시객 긴급 구조	경북	-	1	방파제	실족
28	2015	울산 정자항서 40대 낚시꾼 바다에 빠져 숨져	울산	1	-	방파제	실족
29		울진 사동항 방파제 추락 낚시객 무사 구조	경북	-	1	방파제	실족
30		포항 양포항서 방파제 추락자 긴급 구조	경북	-	1	방파제	실족
31		창원 진해 속천항서 5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	경남	1	-	해상	원인 미상
32		방파제서 테트라포트서 낚시하던 60대 발 헛디터 중상	경남	-	1	방파제	실족
33		서귀포 외돌개서 50대 낚시객 바다 추락	제주	-	1	갯바위	파도
34		충남 태안 파도리해수욕장 갯바위 낚시객 긴급구조	충남	-	-	갯바위	(밀물) 고립
35		갯바위서 40대 낚시객 바다 추락...어선에 구조	제주	-	-	갯바위	파도
36		영도 방파제서 30대 추락사...수차례 지적에도 관리 소홀	부산	1	-	방파제	실족
37		낚시배 잡으려고 바다에 뛰어든 선장 숨져	충남	1	-	해상	파도
38		또 테트라포드 사고' 부산 민락동 방파제서 50대 실족사	부산	1	-	방파제	실족
39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발생, 부산서 낚시하던 박 모씨 떨어져 숨져	부산	1	-	방파제	실족
40		파도에 휩쓸린 갯바위 낚시꾼 2명 구조	경남	-	2	갯바위	(너울성) 파도
41		제주 화북 방파제서 70대 낚시객 추락해 숨져	제주	1	-	방파제	실족
42		군산해경, 낚시 하던 대학생 바다에 빠져 사망	전북	1	-	부두	실족
43		창원해경, 거제 덕포 갯바위 해상 추락 응급환자 후송	경남	-	1	갯바위	실족
44	포항 영일만신항만서 40대 낚시객 해상 추락	경북	-	1	방파제	실족	
45	제주서 또 방파제 추락사고 50대 낚시객 구조	제주	-	1	방파제	실족	
46	2016	울진 후포항서 낚시객 바다 빠졌다 해경에 구조	경북	-	1	방파제	실족
47		바다 낚시 조심... 보령 항구서 50대 낚시객 바다로 추락해 숨져	충남	1	-	항구	실족
48		갯바위서 낚시하던 50대 바다에 빠져 숨져	부산	1	-	갯바위	파도
49		월전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30대 남성 실족해 사망	부산	1	-	방파제	실족
50		부안 격포항서 60대 낚시객 숨진 채 발견	전북	1	-	방파제	실족
51		울산서 낚시객 바다에 빠져 의식불명	울산	-	1	해상	실족

52	2017	울산 우가포 갯바위서 70대 낚시객 '실족사'	울산	1	-	갯바위	실족
53		부산해경, 남항 공동어시장 인근 바다에 빠진 70대 구조	부산	-	1	해상	실족
54		영덕소방서, 축산항 방파제 추락사고	경북	-	1	방파제	실족
55		경주 감포항 외항방파제 고립 낚시객 3명 무사 구조	경북	-	-	방파제	(밀물) 고립
56		포항해경 경주 양남 갯바위 고립 낚시객 2명 구조	경북	-	-	갯바위	(고무보트) 분실
57		탐동 방파제서 추락한 40대 구조	제주	-	1	방파제	실족
58		해경, 바다낚시하다 파도에 휩쓸린 40대 구조	경북	-	1	해상	(너울성) 파도
59		포항해경 구룡포 남방파제 TTP 추락 30대 낚시객 구조	경북	-	1	방파제	실족
60		또 바다낚시 하다 추락 70대 남성 숨져	부산	1	-	방파제	실족
61		속초 영랑동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낚시객 구조	강원	-	2	방파제	(너울성) 파도
62		술 취해 영일만항 북방파제서 추락한 50대 낚시객 구조	경북	-	1	방파제	실족
63		태안해경, 물에 고립된 40대 갯바위 낚시객 구조	충남	-	-	갯바위	(밀물) 고립
64		서귀포 해상서 60대 낚시꾼 숨져...해경, 수사 중	제주	1	-	해상	원인 미상
65		방파제서 낚시하던 60대 추락사	울산	1	-	방파제	실족
66		제주, 60대 낚시객 파도에 휩쓸려 숨져	제주	1	-	방파제	파도
67		제주 추자도 인근 섬서 60대 낚시객 바다에 빠져 숨져	제주	1	-	해상	원인 미상
68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40대 추락해 부상	경북	-	1	방파제	실족
69		부산 앞바다서 고무보트 표류...낚시객 3명 구조	부산	-	-	해상	(고무보트) 표류
70		테트라포드서 낚시하다 추락한 60대 부부 구조	부산	-	2	방파제	실족
71		여수 갯바위서 바다낚시 중 고립 50대 부부 구조	전남	-	2	갯바위	(너울성) 파도
72		통영해경, 고무보트 타고 표류하던 낚시객 구조	경남	-	-	해상	(고무보트) 표류
73		제주 갯바위서 낚시하던 40대 물에 빠져 숨져	제주	1	-	갯바위	원인 미상
74		태안서 40대 망둥어 낚시객 바다에 빠져 숨져	충남	1	-	해상	원인 미상
75		포항해경 테트라포드 추락 낚시객 2명 구조	경북	-	2	방파제	실족
76		진도군, 바닷가 낚시 중 아들과 함께 40대 남성 바다에 빠져 숨져	전남	2	1	선착장	실족
77		서귀포항서 60대 낚시객 바다에 빠져 숨져	제주	1	-	부두	실족

자료: 포털 검색 바탕으로 제작성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자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류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알리바바,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구분	제목	발행일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 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2017.11.15

구분	제목	발행일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북극 과학연구 강화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5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제67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범부처 R&D 추진필요-	2018.1.24

URL : <http://www.kmi.re.kr/>